



지상의 기(氣)를 모아 하늘로 솟구치는 형국의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된 월출산 기찬밧길은 월출산의 물, 숲, 바위, 길을 체험하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에서 월출산의 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보전용으로 개발된 친환경 건강도로이다.

총 길이 5.5km에 달하는 친자연적 기웰빙 산책로로, 물과 바람, 맥반석이 조화를 이룬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에서 월출산의 좋은 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보전용으로 개발되어 하루 평균 200여명의 군민과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기찬밧길 산책



기찬밧길



목교



밧길쉼터



황토길



자연석포장

장소 : 기찬밧길

산책코스 : 기찬랜드 ↔ 탑동약수터 (3.8km 구간)

소요시간 : 60분

비용 : 무료

식후 산책을 통해 월출산의 맑은 기운과 맥반석과 산림에서 방사 하는 원적외선과 피톤치드를 쬐 수 있는 기체험 산책로이다.

문의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061)470-2396

### 기찬밧길 찾아가는길



호남고속도로로 갈 경우 광주 신월IC에서 무안~광주고속도로 제2순환로로 가다 유덕IC에서 나주 방면으로 간다. 이어 13번 국도로 옮겨 타고 영암방면으로 계속 달리면 된다. 영암에 도착해서는 13번 국도에서 왕복 4차선 819호선 지방도로 바뀌어야 한다. 기찬랜드는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목포방향으로 3분 거리에 있다. 곧장 가다 좌회전하면 5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기찬랜드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은 엄청 넓다.

반면 천황사~탑동약수터까지 길이 아직 조성되지 않아 탑동약수터에서 출발한다면 주차 사정이 어렵다. 탑동사거리는 13번 국도에서 819번 국도로 바뀌어야 한다.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이 나오면 바로 좌회전하면 된다. 100m쯤 가서 농로를 포장한 것 같은 왕복 1차로의 좁은 길로 5분정도 가면 탑동소공원이 나온다. 공원이라기보다 쉼터에 가깝다. 주차는 5대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황사에서 이곳까지 1.2km 길이 정비되지 않아 현재 출발지에 해당된다.

### 기찬밧길 구간정보

